

예린이 심장 수술을 받다.

예린이는 지난 1월 6일, 한국에 도착한 후, 즉시 세브란스 응급실로 들어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월 16일 아침, 약해진 몸을 위해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던 예린이의 첫번째 수술이 시작되었고, 수술이 시작된지 몇시간이 지나 저희는 선생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예린이의 심장 상태가 심초음파와 달리 더 좋지 못해 아이가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수술을 중단하셨고 예린이는 가슴을 열어둔채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약물로 잠을 자던 예린이는 더 악화가 되지 않도록 그동안 미뤄왔던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10시간 뒤 수술은 마쳤고 7개월된 몸으로 2주간의 큰 수술을 두번이나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기도로 견뎌내며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검사와 수술을 통해 심장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한 예린이는 일반 심실중격결손이 아니라 “단심실”이라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1차 수술을 포함해 크게 3번의 수술을 기본으로 하는 수술 계획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예린이는 2차 수술을 기다리며 약물로 합병증을 치료하면서 수술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몸집을 키워가는 중입니다. 몸집이 어느정도 자라면 2차 수술은 약 2-3개월 뒤에 진행할 예정이며, 3차는 2차 수술이 끝나고 2년정도 지난 후에 있을 계획입니다.

단심실은 다른 심장병과는 조금 다른 심장병입니다. 저희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 상황이 슬프고 마음이 어렵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기도하는 손길을 보내주셨기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지금까지 저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김성현 김다이 선교사가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른 방법이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을 구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홀로 한국에서 예린리와 병실 생활을 하는 김다이 선교사가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다시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니카라과 선교를 진행하다.

지난 5월 1일 김성현 선교사가 한국과 미국 일정을 마치고 니카라과로 돌아왔습니다. 약 4개월간 떠나있던 사역지와 아이들을 돌아보며 하나씩 하나씩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작년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나눔캠프”를 6월 30일-7월 1일에 다시 열어 말씀과 사랑의 섬김으로 지난 공백을 채울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빈 장소를 찾아 예배를 드렸던 “사랑을 나누는 교회”의 예배당을 세우는 작업도 시작할 것입니다. 늦어도 9월까지의 부지를 확정하고 구입하여서 함께하는 교회 가족들과 예배당을 세워갈 것입니다. 비록 교회 가족들의 대부분이 아이들이고 어른들도 한달의 수입이 \$50도 안되지만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현지 목회자들과 교사들의 재교육을 위한 조직신학을 이곳의 상황에 맞게 번역하고 있으며, 내년 부터는 새롭게 세워지는 공간에서 토요신학교육도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니카라과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는 그동안 멈춰있던 영주권이 문제없이 나와야하고, 또 선교사인 저희가 언어적으로도 더 탁월해야함을 느낍니다. 또한 당분간 혼자 사역들을 감당해야하는 김성현 선교사가 영육간에 더 깨어 있어야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기도를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사랑의 나눔을 부탁드립니다.

1. 김성현 선교사의 영주권이 큰 문제 없이 나올 수 있도록
2. 니카라과에서 홀로 사역하는 김성현 선교사의 영적인 상태와 언어가 더 깊어지도록
3. 니카라과에 무섭게 퍼져가고 있는 이단들이 바른 말씀으로 무너지도록
4. 한국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김다이 선교사와 예린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5. 예린이가 기다리고 있는 2차 수술을 잘 견디고 회복할 수 있도록

2017년 5월 10일 김성현. 김다이, 김예린 드림

니카라과와 중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God's plan for Latin America and Nicaragua.

김성현 선교사 김다이 선교사

e-mail jlovehuny@hanmail.net

"IGLESIA PRESBITERIANA COREANA DE NICARAGUA"
VALLE SANTO DOMINGO. PORTON UNICA 1C AL SUR 75 VARAS AL NORTE.
MANAGUA, NICARAGUA. P.O BOX NO. 1028



니카라과 연락처 505(국가번호) 8622-7609

한국 - 국민은행 959102-01-352103 김성현

미국 - Wells Fargo 062000080 729090 8438 Youngmi Kim